

“뚝리면 안된다” 축산농가 방역 초비상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파장...전남 방역 현장 가보니

“설마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오전부터 모든 돼지사육농가들이 자체 방역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꺼려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7일 인터뷰 내내 양찬규 대한양돈협회 나주 지부장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걱정과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양 지부장은 “농립축산식품부로부터 인공수정용 돼지 정액을 포함한 모든 가축 관련 이동을 중단시켰다는 통보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며 “지자체, 축협 등과 별도로 돼지농가들이 자체 방역에 나서 협회 차원에서도 지원하느라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이번 일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전남지역은 구제역도 비껴간 전례가 있는 만큼 돼지열병도 잘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자 전남지역 모든 돼지사육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에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는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580농가가 돼지 113만 5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가 수는 나주(80가)가, 사육두수는 무안(20만 9371마리)이 가장 많다.

돼지농가들은 1차 방역으로 양돈장 입구부터 축사를 한 바퀴 두르는 생석회 살포에 들어갔다. 지자체나 농업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장주들은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안에서 8만 마리 규모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전남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닭·오리가 대부분으로 알려졌지만 돼지도

전남 사육 규모 전국의 10%

축사마다 생석회 살포 하고

주요 도로엔 거점소독시설

일일이 소독하며 차단 총력

돼지고기 꺼려할까 걱정도

전국 사육 규모의 10%에 달하는 등 무시 못할 수준”이라며 “농가 한곳이라도 돼지열병이 뚝리면 견딜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방역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난 17일 오전 나주시 금천면의 한 교차로에서 축협에서 나온 방제단원들이 도로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축협 관계자는 공중으로 분사하면 지나는 차량의 겉면에 소독약이 묻어 운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에만 뿌린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전남 각 사군을 잇는 주요 도로에는 지난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또다시 차량에 소독약품을 자동 분사하는 거점소독시설이 등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차량에 소독약품을 뿌린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원을 의식한 축산방역 관계자들은 차량 바퀴에만 약품이 닿도록 도로바닥에 약품을 살포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돼지고기 유통업 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40% 이상 오르기도 했다.

광주에서 돼지고기를 생산·유통하는 B업체 대표는 “국내 사육 개체수가 줄어 들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같은 중·소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예의주시는 것 뿐”이라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직장인 윤준영(35)씨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돼지고기 값이 올랐는데 이번 일로 또 오르는 것 아니냐”며 “삼겹살이 더 이상 서민음식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빛원전 인근서 드론 날린 40대 검거

주간에만 수차례 사진 촬영

야간 조종사는 아직 못잡아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무인비행체)을 날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주간에만 드론을 조종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월 27일과 지난 7월 원전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된 드론 조종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7일 영광경찰은 드론 비행금지구역 인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이모(48)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 수차례 드론을 띄워 8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취미용 사진을 찍기 위해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웠고, 원전 방향이 아닌 인근 풍경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두차례 발견된 드론 조종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드론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씨가 찍은 사진을 확인한 결과 모두 주변 풍경으로 나타나 전남지역 항공 운영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야간 드론 조종사 추적도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원전 인근 드론 조종사들이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들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원전 인근 드론 출몰 13건 중 올해에만 10건에 달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 안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29일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조종자도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드론 격추 기술은 현장에 도입되지 않아 원전 등은 드론 테러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

방위사업청은 880억을 투자해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지만 개발 완료 목표는 2023년이다.

한편,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한빛원전은 주변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며,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범인 피습에 다친 경찰 급증

전남이 범인 피습에 의해 경찰관이 부상 입는 '공무상 상해'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범인 피습 사례는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15.8%)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명이 손가락기도 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11건에서 25건으로 127%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도 범인에게 피습당해 경찰관이 다치는 사례가 같은 기간 16건에서 27건(68.8%)으로 전국 평균보다 증가 폭이 컸다.

범인에 의해 경찰이 부상당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압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 1000여 명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건수는 2017년 379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41건 감소했다.

범인 피습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전남 역시 684점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사용 건수는 22건에서 16건으로 6건 줄었다. 335점을 보유한 광주는 8건에서 1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진도대교서 동반투신...1명 사망·1명 실종

해남 진도대교에서 동반 투신한 남성 중 한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진도군 벌포항 동쪽 1km 해상 김양식장에서 그물망에 걸려있는 A(35·서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해남군 문내면 진도대교 입구에 남성 2명이 주차한 차량이 5일째 서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은 CCTV를 통해 A씨와 B(31·전

주)씨가 지난 12일 새벽 2시 10분께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확인, 경비정 2척·연안구조정 1척·헬기 1대·일반경찰 25명을 동원해 인근 해상을 수색 중이다.

A씨 등은 투신 당일 진도대교 입구 한 횡단 앞 차량을 주차한 뒤 진도대교로 이동했으며, 이들이 타고온 차량 안에서는 휴대전화 2대와 지갑 1개, 소주병 3개, 번개탄 2개가 발견됐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전주 아파트 욕실서 모자 숨진 채 발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母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주 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 덕진구 한 아파트 욕실에서 A(여·39)씨와 그의 아들(3)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아들은 욕조에 받아 놓은

물에 빠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서는 “요즘 슬럼프다. 힘들다”고 적힌 A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지난 6~7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에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외부인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전주=박기성 기자·전북 취재본부장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서 포탄 발견 '한바탕 소동'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돼 한바탕 소동.

○1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땅 속에서 길이 20cm,

직경 5cm가량의 60mm 박격포탄이 나와 노동자들이 화들짝 놀랐다는 것.

○발견 당시 포탄은 시간이 오래 지나 부식이 심한 상태였는데, 경찰 관계자는 “포탄이 발견된 공사 현장이 과거 군에서 사용하던 포사격장이었고, 감식 결과 훈련탄으로 판명됐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치고 대지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도덕동(성도) 대로점 2중주거지 534㎡ 투지에 좋은 8억2천 시유지 백여평도 사용함
-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휴양림 부근 31976㎡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5억5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온남동 하모리 11607㎡ 투지에 좋은 농형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상가건물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펜션적합 건평 269㎡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칠불사까지 3km 4억6천
- 서귀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 신축 카페상대지 73㎡ 2중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곡성군 목시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담과 일 234044㎡ 다용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전면 상암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점 펜션 땅 2399㎡ 시설 완벽 투자까지 양호 16억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구매 3억6천
- 요양시설 최고 영평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추기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암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연수,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충정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